



- 정부는 요소수 시장의 생산·유통·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, 수입 요소수 및 해외물량 확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,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중점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
- 첫째, 주말을 지나며 5대 주요 생산업체<sup>\*</sup>가 생산을 재개하여 국내 전체 생산물량이 지난 주와 같이 1일 소비량(60만 리터)의 2배 수준을 회복하였음
  - \* 5대 기업 생산량(단위: 만 리터) : (11.24) 76 (11.25) 81 (11.26) 79 (11.27) 72 (11.29) 63
- 둘째,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중점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고 있음
  - 11월 27일 111개소에서 28일 10개소를 추가하였으며, 29일 6개를 추가하여 총 127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를 운영중
  - 또한 주요 생산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의 개수가 대폭 감소<sup>\*</sup>하는 등 중점 유통 주유소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
- 11월 26일 T맵에 이어 전일(11.29)부터 네이버, 카카오맵, 카카오내비도 2시간 단위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를 공개중
  - 정부는 주요 생산 업체의 영업망 가운데 알뜰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 등 약 2,200여개소를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중
- 셋째, 중국과의 既 계약 물량 18,700톤 중 검사 신청이 완료된 16,800톤에 대해 수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,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1,900톤 물량에 대해 서는 개별 건 별로 검사 신청을 독려중

- 검사 신청이 완료된 16,800톤 중 당초 9,710톤에 대해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었으나, 11월 25일 400톤이 추가로 검사 완료되어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은 총 10,110톤으로 확대
  -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 10,110톤 중 300톤은 국내 기 반입되어 생산 과정에 투입되었으며, 전일 오전 7시 롱커우항을 출항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L社 차량용 요소 3,000톤은 내일 23시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하역 작업을 거쳐 L社의 생산 공장으로 신속히 입고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하에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중
  - 한편,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2,110톤 물량 중 차량용 요소 800톤은 빠르면 12월 4일 중국을 출항할 예정이며, L社의 또 다른 3,000톤 물량도 12월 5일 출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
- 중국 이외의 주요 대체 수입선인 베트남에서도 정부와 코트라 간 협업 등을 통해 11월 중 약 4,000톤이 국내 반입 완료되었고, 12월 초에도 베트남 1,340톤, 일본 200톤 등이 추가 반입 예정
- N社는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100톤을, L社는 사우디에서 차량용 요소 504톤을 신규 계약하였고,
  - 코트라가 수입 검사를 의뢰한 인도·인니산 요소 2건도 분석 결과 차량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수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
- 넷째,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요소 수입 물량과 차량용, 산업용, 농업용 등 전체 요소의 항목별 연간 사용량을 비교·분석하여 2~3개월 단위의 단기 시계,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시계 등 단기와 중장기를 망라한 기간별 요소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

